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영성의 해' 영성특강 전체 일정

3/1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6/14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James Gannon OFM (작은형제회 미국관구)
7/5 (오늘)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이설빈 세례자 요한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10/11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1/1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2/13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027년 달력 광고 신청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6월 14일(주일)- 7월 26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신청: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2026년 제43차 미동북부지구 올뜨레야 대회

일시: 7월 4일(토) 9:00AM-3:00PM

장소: 뉴저지 메이플우드성당

참가신청문의: 347-707-0305(간사 윤복흥 요한)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 관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신용문 야고보 신부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준비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견진준비반: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타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증명서 제출)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그림 특상

멈출 수 없는 길 | 몰랐던 생명의 비상구를 알게 되었으니, 어찌 그리운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혈육의 정'과 '진리의 길'이 같은 것이고, 말만 달랐지 똑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약한 믿음으로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고, 제게는 감히 신앙선조들의 순교를 따를 용기도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틀림없이 그랬을' 따뜻함에 다가 가만히 안겨 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0호, 2026년 7월 5일(가해)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과거도 미래도 버린 사나이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학교 보좌주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내포 솔피에서 김제준 이나시오와 고 우르술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836년 12월 3일 한양을 떠나 마카오와 마닐라를 오가며 5년간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1844년 12월까지 최양업 토마스와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해 12월 5일 부제품을, 1845년 8월 17일에는 만 24세에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2개월을 바다에서 보내야 했고 1845년 10월 충청도에 상륙하셨지만, 1846년 6월 5일 순위도에서 잡혀 4개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참수치명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3개월의 사제 생활 중 2개월은 바다에서 지냈고, 7개월은 숨어 살았으며, 4개월은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 하셨습니다. 10년을 투자해서 7개월을 써먹은 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며 실패에 가까운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부터 순교까지 성인께서는 절망적 상황을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1839년 기해박해로 앙베르(Imbert) 주교님과 모방(Maubant), 샤스탕(Chastan) 신부님께서 교우들을 위해 자수하여 순교하셨고, 자기 부모와 친구 최양업 토마스의 부모를 비롯하여 70명이 넘는 교우가 순교하였으며 많은 이가 강제로 종교를 저버리게 되었고, 살아남은 신자들도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들면서 조선 교회는 절망의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절망적으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외치셨을 때 돌아온 하느님의 침묵이 하느님의 무능함이나 사랑의 멈춤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교 순간까지도 교우들에게 사목서한을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의탁하고, 고문의 고통 중에도 참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권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솔피를 떠날 때 과거를 버렸고 새남터에서 목숨을 바칠 때 세상이 초대하는 미래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영웅이길 마다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저 겸손하게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자기보다는 하느님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종이셨습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오늘, 우리나라 성직자들이 하느님의 계산법을 헤아리며 소영웅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내 기획보다는 하느님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순교 정신을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서울주보>, 제2620호, 2026년 7월 5일(가해)



가톨릭 제주교구 미술가회
김형진 대건안드레아(김기량 본당)
[Acrylic, Mirror Photograph]